20130914 제17회 종교문화축제 인사말

인사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종교 지도자 여러분, 신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뜨겁게 대지를 달구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도 절기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저만큼 물러나고 수확의 계절, 성취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종교문화축제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종교문화축제의 주제는 “마음껏 사랑하라”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사회는 타인을 아끼고, 걱정하고, 배려하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아낌과 걱정과 배려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풍토에서 오로지 자신이 누리는 물적인 풍요만이 지고의 가치인양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7회 종교문화축제를 통하여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아끼고, 걱정하고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이타적인 마음을 마음껏 발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타적인 마음이 가족, 연인, 이웃을 넘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치도록 사랑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종교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자 근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공동체가 존립하는 이유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공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종교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개개인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 맺으며 공통의 끈으로 엮여 있음을 가르쳐왔고, 그 공동체의 근원과 미래를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종교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무한한 삶의 에너지, 창조적 영감의 근원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질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제시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이러한 종교의 역할과 미래를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종교가 주는 위로, 평온, 안식, 나눔을 함께하시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영감과 에너지를, 그리고 사회와의 든든한 연대를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가능하도록 성심으로 후원해주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4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승